

성격강점 및 덕목 그리고 행복 간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김 현 정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성격강점 및 덕목은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강점 및 덕목과 행복 간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한 초등학교의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93명(남자 199명, 여자 19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각 성격 덕목은 행복 및 학교적응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6가지의 성격 덕목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여 성격 덕목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학교적응이 성격 덕목과 행복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강점 및 덕목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적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 개인의 성격강점 및 덕목을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격강점 및 덕목, 행복, 학교적응, 매개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Fax : 02-6223-3928, E-mail : elip@korea.ac.kr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연구들은 행복 수준이 높으면 수명이 더 길고, 대인관계 문제 및 심리적 문제가 더 적으며, 신체적인 건강이 더 나은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Frisch, 2000).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행복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3년 연속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낸 점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을 나타내 준다(한국일보, 2011).

행복에 관한 연구 초기에 행복은 주관적인 안녕감으로 정의되었는데, Diener와 Diener(2000)는 이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복이 단순히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쾌락주의적인 것 이상이라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Ryff(1989)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개인적 성장,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삶의 목적과 의미, 자기 수용의 6가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실현 및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의 요소라고 본 것이다(Lopez, 2011). Seligman(2002)은 행복의 세 가지 요소로 긍정적인 감정, 관여, 의미를 들었다. 긍정적인 감정은 즉각적인 즐거움과 삶의 만족을 나타내는 것이며, 관여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몰입함으로써 자기 실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의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다. 이처럼 행복의 정의는 개인내적인 주관적 의미 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기능하며 자기실현적인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최근 긍정심리학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21세기에 들어 그동안 인간의 부정적인 특징들인 정신병리, 문제행동의 치료에 초점을 두어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간의 긍정적인 특징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발하여 더욱 번영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인간의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특징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이 개발되어 발전되어 왔다. 여기에는 정신병리 및 성격장애,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분류와 진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의사,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의사소통하고 진단 및 치료와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이나 부정적 특징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번영을 추구할 필요를 느낀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부정적 특징이나 질병이 아닌 강점과 덕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류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성격 강점 및 덕목은 철학과 종교 등에서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핵심적인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성격강점 및 덕목에 대한 논의는 고대 철학자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예로 플라톤은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개인과 사회에 선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덕목이라고 하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목을 강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양쪽 극단 사이에 위치하는 중용의 덕목을 강조했다는데, 예를 들어 자기통제는 충동성과 우유부단함 사이에 성공적으로 조화된 것

이다. 공통적으로 성격 강점 및 덕목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자신과 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해 McCullough와 Snyder(2000)는 성격 덕목이란 개인과 사회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관적인 심리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정의를 수용하여, 성격 강점 및 덕목을 개인과 사회에 모두 혜택이 되는 방식으로 추구하고 행동하는 개인의 일관적인 양식이라 정의하였다.

성격강점 및 덕목은 개인의 일관성 있는 특징으로서 성격적인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그동안 도덕적 가치를 포함한 용어들은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나 학문적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Allport가 덕목(virtue) 또는 인격적 측면을 포함하는 성격(character)을 나타내는 단어들 대신 중립적 의미의 성격(personality)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Nicolson, 1998; McCullough & Snyder, 2000). 그러나 이에 대해 McCullough와 Snyder(2000)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기술하려는 근대적 학문 태도가 몇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고 하였다. 첫째로 전통적인 덕목이 과학적인 맥락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아왔다. 따라서 지혜, 희망, 감사와 같은 강점들은 최근에서야 연구되고 있다. 둘째로 성격 강점 및 덕목에 기반하여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즉 교육심리학자나 심리치료자들에게서 희망, 용서, 감사, 자기통제와 같은 강점은 자주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를 학문적으로 명시적인 해결책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왔다(MaCculloch & Snyder, 2000).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기존에 분류해 온 성격의 차

원이 아니라, 성격특징 그 자체로 긍정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가진 성격적 강점이나 미덕, 덕목을 찾아냈다. 이들은 성격강점 및 덕목의 선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실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과는 구분되는 긍정적이고 측정될 수 있는 개인적 특질을 들었다. 이같이 선별한 성격강점과 덕목들은 6개 덕목인 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성의 분류 하에 다시 하위 강점인 24개의 강점으로 분류되었다. 덕목들은 성격 강점들의 상위 가치이며, 성격강점은 덕목을 정의해주는 심리학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혜와 지식의 덕목은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과 같은 강점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들 덕목과 성격강점에 대한 설명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in action: VIA)가 현재까지의 동서양의 대표적인 덕목과 성격강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성격강점과 다양한 긍정적 측면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들에서 성격강점과 적응 및 삶의 만족, 행복이 관련되었으며(윤성민, 신희천, 2012; 임영진, 2012;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Peterson & Seligman, 2004; Ruch et al., 2010), 외상적인 사건에서 회복되는 것 및 신체적 질병에서 호전되는 것에도 관련되었다(Peterson, Park, Pole, D'Andrea, & Seligman, 2008; Peterson, Park, & Seligman, 2006).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강점 및 덕목은 아동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기

표 1. 성격강점 및 덕목의 분류

1. **지혜와 지식(wisdom and knowledge):** 지식의 습득 및 활용과 관련된 인지적 강점
 - 창의성(creativity): 참신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는 능력
 - 호기심(curiosity):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험과 현상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
 - 학구열(Love of learning): 새로운 기술, 주제, 지식을 배우고 숙달하려는 동기와 능력
 - 개방성(Open-mindedness): 사물이나 현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고 검토하는 능력
 - 통찰(perspective):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타인에게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
 2. **용기(Courage):** 내적, 외적 난관에 직면해도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관련된 정서적 강점
 - 진정성(Authenticity): 진실을 말하며 자신을 진정한 방식으로 나타내고 행동하는 능력
 - 용감함(Bravery): 위험, 도전,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능력
 - 인내(Persistence):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능력
 - 활력(vitality): 활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삶에 임하는 태도
 3. **인간에(Humanity):**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친밀해지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강점
 - 친절(Kindness):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 사랑(Love):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능력
 -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잘 파악하는 능력
 4. **정의(Justice):**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시민사회적 강점
 - 공정함(Fairness): 모든 사람을 공정한 원칙에 입각해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
 - 리더십(Leadership): 집단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능력
 - 시민의식(citizenship): 사회나 조직에서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부응하려는 태도
 5. **절제(Temperance):** 지나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용적 관점
 - 용서(Forgiveness):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 겸손(Modesty):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장된 허세를 부리지 않는 태도
 - 신중함(Prudence): 선택을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후회할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
 -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6. **초월성(Transcendence):** 더 큰 세계와 연결성을 추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 심미안(Appreciation of beauty and excellence):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뛰어난, 숙련된 수행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
 - 감사(Gratitude): 좋은 점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
 - 희망(Hope): 최선을 기대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 유머(Humor): 웃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능력
 - 영성(spirituality):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신념
-

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희망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문제증상을 줄여줄 뿐 아니라 학업과 일에서의 성취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Gillham & Reivich, 2004).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강점 및 덕목이 행복이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었다(김미진, 홍혜영, 2011; 원두리, 2011; Park & Peterson, 2006).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강점 및 덕목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들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격강점 및 덕목이 행복을 증진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성격강점 및 덕목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윤병오, 2011). 이러한 점은 성격강점 및 덕목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주관적 행복감과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내, 시민의식, 용서와 같은 강점들은 때때로 힘든 노력의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복감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격강점 및 덕목과 행복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격강점 및 덕목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Nettle, Schnitker와 Robins(2011)는 성격강점 및 덕목에 대해 다양한 매개요인 및 중재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 강점 및 덕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변인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학교적응이 있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에서의 적응은 이들이 건강한 발달과 긍정적 성취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학교는 생애 발달을

형성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곳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Ladd, 1990). 학교적응에 실패하는 것은 이후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되었으며(Cowen, Pederson, Babigian, Isso, & Trost, 1973; Kupersmidt & Coie, 1990), 학업중단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김범구, 2012).

현재까지 아동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우울(박은민, 2010) 및 분노(김광수, 2003)와 같은 부정적 특성 뿐 아니라 긍정적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배은경, 2011; 이정윤, 이경아, 2004; 임수경, 이형실, 2007), 자아탄력성(곽민경, 서보준, 2011; 김수진, 김혜숙, 2011; 이윤주, 2004; 이지미, 김현주, 2011), 자기효능감(구본용, 유제민, 2007; 구혜경, 이수진, 2011) 등이 관련되었다. 부모와 관계에서 애착 및 양육태도(문은식, 2003; 송희원, 최성열, 2012; 왕해옥, 김광웅, 2004; 임수진, 안진홍,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김대원, 양혜진, 2005; 이정윤, 이경아, 2004; 이지미, 김현주, 2011), 부모와 관계 (임수경, 이형실, 2007)등도 관련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또한 사회적 지지(곽민경, 서보준, 2011; 구혜경, 이수진, 2011), 친구 관계(임수경, 이형실, 2007) 등의 사회적 관계 요인도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개인의 긍정적인 특징들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은 학교환경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규미, 2005; Shoshani & Aviv, 2012).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의 기대와 규칙에 순응하는 것을 배우고, 친구들의 그룹에 소속되며, 학업 및 대인관계의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

게 된다(Patrick, Yoon, & Murphy, 1995). 성격강점 및 덕목은 이러한 적응의 과제를 해결하는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혜와 지식의 덕목은 인지적인 강점들로서 학업적 성취의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용기 덕목은 목표를 수행하고, 목표에 대한 내적 및 환경적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관련될 수 있다. 절제 덕목은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여 학업 및 관계에서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게 할 수 있으며, 인간애 덕목은 친구와 관계, 교사와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다(Shoshani & Aviv, 2012). 또한 정의 덕목은 학교 집단의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며, 초월성 덕목은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서적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Shoshani & Slon, 2013).

경험적 연구들은 성격강점 및 덕목과 학교 적응의 관계를 지지하였다. 인지적 강점 및 절제의 강점들이 학업 성취를 예측하였으며(Shoshani & Slon, 2013), 인간애 덕목의 사회기능과 대인관계적 강점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능 및 학업 성취를 예측했다(Ladd, 1990; Shoshani & Aviv, 2012). 또한 용기 및 절제 덕목으로서 자기조절 능력과 인내는 학업 성취 및 학교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왔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Schunk & Ertmer, 2000). 최근 연구들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강점 및 덕목들은 학교적응과 유의하게 관련되었고, 1년 후의 학교성적을 예측했다(인보영, 김인옥, 2012; Shoshani & Aviv, 2012; Shoshani & Slon, 2013). 따라서 성격강점 및 덕목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은 학교에서의

생활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교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에서의 적응은 생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보람과 박혜준(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학업성적 및 교우관계가 남녀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에서의 적응이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aker & Maupin, 2009). 다른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가정은 확인되었는데, 초등학생의 전반적 삶의 질과 선생님이 보고한 심리적 문제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Huebner & Alderman, 1993). 또한 학교만족이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했으며(Katja, Paivi, Marja-Terttu, & Pekka, 2002), 학업 성적 및 대인관계가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되었다(Gilman & Huebner, 2006). 그리고 최근 종단연구 결과에서는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Stiglbauer, Gnambs, Gamsjäger, & Batinic, 2013).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및 덕목, 학교적응, 그리고 행복 간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강점 및 덕목과 행복 간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방 법

참여자

한 초등학교의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단위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39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남자 199명, 여자 194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 123명, 5학년 127명, 6학년 143명이었다. 이들의 나이 범위는 만 9세에서 13세까지였다.

측정도구

단축형 성격 강점 척도

성격강점과 덕목에 대한 분류체계를 자 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청소년용 척도인 VIA-Youth척도에서 각 강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48문항으로서,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소개하고 문용린, 김인자, 원형주, 백수현, 안 선영(2009)이 번안한 것을 단축형 척도로 사용 하였다. Park과 Peterson(2005)에서 원 척도의 각 강점에 대한 내적일치도가 $\alpha=.66$ 에서 $.87$ 이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주관 적으로 보고한 것과 척도 상 결과가 대부분 일치하였고, 대인관계 강점은 이들의 주관적 삶의 질 및 교사가 보고한 학생의 인기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고 보고되었다. 단축형 척도는 24개 강점에 대해 각 2문항씩으로 구 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한다. 각 강 점에 대해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었다. 국내 한 연구에서 단축형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alpha=.86$ 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추구경향과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김미선, 박성희, 김진영, 2013).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alpha=.81$ 이 었으며, 덕목은 각 덕목을 이루는 강점들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행복 척도

Campbell(1981)이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최근 삶에 대한 느 낱을 묻는 8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묻 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요소를 합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한다. 삶에 대한 느낌은 예를 들어 ‘재미있는’과 ‘지루한’ 사이에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를 7 점 척도로 평정한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0%에서 100% 사이 구간에 대해 11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신 (199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원 척도에서 삶에 대한 느낌 척도의 내적 일 치도가 $\alpha=.9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전체 및 삶에 대한 느낌 척도 모두 $\alpha=.90$ 이었다.

학교생활 적응 척도

임정순(1993)이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적응 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총 3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 관계, 교우와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의 4가지 영역으 로 구성되며, 각각 교사와 관계에서의 적응, 교우와 관계에서의 적응, 수업에 대한 관심 및 흥미와 참여 정도, 그리고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정도를 측정한다. 5점 likert척 도로 평정하며,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임정순 (1993)에서 $\alpha=.89$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82$ 였다.

절차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격강 점 및 덕목과 행복에 대한 학교적응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

용하였다. 6개 덕목은 각 24개의 강점들의 상위요인으로서 요약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6개 덕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 AMOS 18.0이었다.

결 과

변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관계

6개 성격 덕목, 학교적응 및 행복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6개의 덕목들은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성격 덕목과 학교적응 및 행복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성격 강점 및 덕목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성격 강점 및 덕목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학교적응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다. 6개 각 성격 덕목인 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성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성격 덕목’이라는 하나의 잠재변인을 구성하였으며, 6개의 성격 덕목은 각각을 구성하는 성격 강점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학교적응은 4가지 하위요인으로, 행복은 9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였다. TLI 및 CFI는 .90이상일 때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되며, RMSEA는 .80이하일 때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된다(Brown & Cudeck, 1993;

표 2. 변인 간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지혜와 지식								
2. 용기	.52**							
3. 인간애	.45**	.51**						
4. 정의	.38**	.42**	.50**					
5. 절제	.29**	.43**	.36**	.21**				
6. 초월성	.46**	.45**	.54**	.38**	.29**			
7. 학교적응	.49**	.39**	.53**	.46**	.24**	.46**		
8. 행복	.29**	.36**	.39**	.35**	.19**	.35**	.57**	
평균	32.84	26.32	21.65	19.79	26.14	33.97	107.41	51.29
표준편차	4.88	4.14	3.73	2.95	3.39	5.83	14.78	11.02

** $p < .01$.

Schumacker & Lomax, 1996).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387.013(df=149)$, CFI=.925, TLI=.904, RMSEA=.064로 적합한 수준이었고, 잠재 변인에 대한 모든 측정 변인들의 요인계수가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사용해 학교적응이 성격 덕목과 행복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성격 덕목과 행복을 학교적응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 성격 덕목에서 학교적응, 학교적응에서 행복으로 가는 경로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 덕목에서 행복으로 가는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아 완전 매개효과를 시사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성격 덕목의 행복에 대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에 대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p<.001$)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부분매개모형에서 변인 간 직접 및 간접효과를 구했을 때, 성격 덕목이 행복에 미치는 표준화된 직접효과는 .056, 간접효과는 .462로 나타나, 직접효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학교적응이 완전히 매개하는 완전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는 $\chi^2=387.280(df=150)$, CFI=.925, TLI=.905, RMSEA=.063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해 보았다.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구했을 때 $\chi^2=387.013(df=149)$, CFI=.925, TLI=.904, RMSEA=.064로 나타나, 두 모형의 적합도는 χ^2 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3). 두 모형이 내재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χ^2 차이 검증을 이용해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모형 간 $\Delta\chi^2=0.267$ 이고, 이는 자유도 1, 유의도 수준 .05에서 $\Delta\chi^2$ 임계치인 3.84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χ^2 값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에서 차이가 없으나 df값에서 부분매개모형에 비해 완전매개모형이 더 나은 모형이므로,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계수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성격 덕목에서 학교적응으로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788, 학교적응에서 행복으로의 계수가 .650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격 덕목에 대한 요인계수는 인간애가 .755로 가장 높았고, 용기 .688, 초월성 .667, 지혜와 지식 .664, 정의 .616, 절제 .446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및 행복에 대한 요인계수들 모두 표준화계수가 .578 이상이었으며, 유의도 수준 $p<.001$ 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표 3.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CFI	TLI	RMSEA
부분매개모형	387.013	149	.925	.904	.064
완전매개모형	387.280	150	.925	.905	.063

표 4. 최종모형(완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학교적응 ← 성격 덕목	1.217	.778	.108
행복 ← 학교적응	.205	.650	.023
지혜와 지식 ← 성격 덕목	1.150	.664	.096
용기 ← 성격 덕목	1.012	.688	.082
인간애 ← 성격 덕목	1.000	.755	-
정의 ← 성격 덕목	.645	.616	.057
절제 ← 성격 덕목	.538	.446	.067
초월성 ← 성격 덕목	1.381	.667	.115
교사와 관계 ← 학교적응	.634	.607	.058
교우 관계 ← 학교적응	.650	.598	.060
학교수업 ← 학교적응	1.000	.755	-
학교규칙 ← 학교적응	.631	.661	.053
h1 ← 행복	.865	.748	.071
h2 ← 행복	.837	.804	.065
h3 ← 행복	.794	.731	.066
h4 ← 행복	.847	.732	.071
h5 ← 행복	.796	.745	.065
h6 ← 행복	.793	.749	.065
h7 ← 행복	.852	.738	.071
h8 ← 행복	.744	.578	.075
만족도 ← 행복	1.000	.620	-

주: 모든 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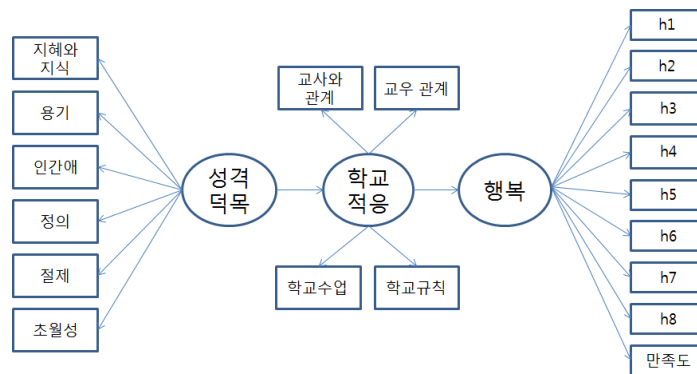


그림 1. 성격 덕목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모형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격강점 및 덕목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성격강점 및 덕목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수립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모형적합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6가지 성격 덕목으로 구성된 성격 덕목 잠재변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적응이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을 통해 성격 덕목이 행복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성격 덕목이 학교적응을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 강점 및 덕목이 긍정적인 특성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격 덕목 그 자체로 기능한다기보다는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격강점 및 덕목은 아동 및 청소년 개인의 행복 뿐 아니라 타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사회화의 장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적응에 성공적일 때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격 덕목 중 행복 및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애 덕목으로 나타났다. 인간애는 정서적 대인관계적 강점의 덕목으로서, 타 연구들에서 사랑 강점이 일관적으로 행복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Park & Peterson, 2006;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Shoshani & Slone, 2013).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친구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또래에게 소속감을 느끼

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hoshani & Slone, 2013).

인간애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용기이다. Peterson과 Seligman (2004)은 용기 덕목에 대해 신체적 위험을 극복하는 외적 행동 뿐 아니라 내면적인 생활로서 윤리적 진정성을 지키고, 비건설적인 습관이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극복하는 인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용기에 속하는 강점들로서 활력은 일반적인 삶의 만족을 예측했으며, 인내는 좋은 학업성적을 예측했다(Lounsbury, Fisher, Levy, & Welsh, 2009). 또한 인내 및 진정성이 높은 청소년에게서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가 더 적게 나타났다(Park & Peterson, 2008). 따라서 용기가 학교적응 및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성격 덕목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는 점이다. 최근 중학생의 성격강점과 행복 및 학교적응의 종단적인 상관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이 학교적응 변인으로서 학교 성적,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된 행복을 유의하게 예측했다(Shoshani & Slone, 2013). 그러나 이들은 상관분석 외의 종단적 분석은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었다. 본 연구는 성격 덕목과 행복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을 매개변인으로 검증하여, 변인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추후에는 종단적 연구에서 경로가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에는 성격강점 및 덕목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Baker & Maupin, 2009). 성격강점 및 덕목만으로 행복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

를 들어 인간에 덕목이 높은 아동이라 하더라도 만약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경험을 하게 될 경우 또는 높은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경우, 그러한 아동이 경험하는 행복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성격 덕목들을 갖추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일이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행복을 위해 학교적응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격 강점 및 덕목이 학교적응 및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교육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성격 강점 및 덕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중 펜실베이니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Penn Resiliency Program: PRP)은 아동 및 청소년의 낙관성과 희망을 증진시킴으로써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illham & Reivich, 2004; Seligman, Ernst, Gillham, Reivich, & Linkins, 2009). 따라서 학교 장면에서 성격강점 및 덕목을 증진시키는 교과과정이 개발된다면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roctor et al., 2011). 국내에서도 성격 강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주관적 만족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

고 보고되었다(고영진, 김진영, 2012; 김순복, 2007; 박성희, 김진영, 2012; 백순복, 2010; 이현주, 2011). 또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감사 훈련 프로그램 등 각 강점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도 제안되었다(김정효, 정인숙, 김신래, 임화정, 2007; 조진형, 김경미, 김동원, 김정희, 2008). 추후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점 및 덕목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이들의 학교적응 및 행복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3가지의 기본 욕구-유능성(competence), 연결감(relatedness), 자율성(autonomy)-가 충족되는 것이 심리적인 성장 및 행복에 핵심적일 수 있다. 학교 장면에서 유능성, 연결감, 자율성을 충족시키는 활동의 예를 들자면, 학업 과제 등의 도전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유능감을 획득하거나 교사 및 또래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형성을 통해 연결감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목 선택과 같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수용함으로써 자율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tiglbauer et al., 2013). Deci와 Ryan(2000)은 이러한 세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심리적 웰빙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장면에서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및 덕목과 행복 간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학교적응이 핵심적인 요소임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학교심리학적 개입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격강점 및 덕목이 학교적응에, 그리고 학교적응을 통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단 연구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성격강점 및 덕목 척도는 단축형으로서 문항수가 적어 신뢰도에 제한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추후 원 청소년용 성격강점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척도가 자기 보고식으로 이뤄졌는데, 성격 덕목 및 학교적응과 같은 변인은 자가 평가 외에 타인의 행동평가가 함께 이뤄지면 변인 측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아동 및 청소년 전체 집단에 확대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고영건, 김진영 (2012).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광민경, 서보준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조

손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복지행정 논총, 21, 75-112.
 구본용, 유제민 (2007). 중고등학생의 다차원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5, 67-76.
 구혜경, 이수진 (2011).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성향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육논총, 30, 51-83.
 김광수 (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17, 393-410.
 김대원, 양혜진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문집, 23, 273-292.
 김미선, 박성희, 김진영 (2013).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행복추구경향 간의 관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5(1), 53-71.
 김미진, 홍혜영 (2011).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행경, 9, 85-95.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 315-337.
 김수진, 김혜숙 (201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0, 203-221.
 김순복 (2007).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효, 정인숙, 김신래, 엄화정 (2007).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교

- 육과학연구, 38, 117-140.
- 문은식 (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1, 349-369.
- 박성희, 김진영 (2012). 긍정심리 상담 및 치료의 현재와 미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 61-77.
-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 75-88.
- 배은경 (201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 85-100.
- 백순복 (2010). 긍정심리적 집단상담의 효과 검증: 긍정심리 및 자아탄력성 특성 기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희원, 최성열 (2012). 빈곤 여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6, 651-672.
- 왕해옥, 김광웅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1, 77-88.
- 원두리 (2011). 성격 강점이 청소년의 안녕감과 적응적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 151-167.
- 윤병오 (2011).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 활용을 위한 2009 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 분석. *윤리철학교육*, 16, 129-149.
- 윤성민, 신희천 (2012). 한국 수도권 중년여성들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 27-49.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명신 (1998).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보람, 박혜준 (2011).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인 삶의 질 양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 129-152.
-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 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4, 435-449.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261-276.
- 이지미, 김현주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8, 97-120.
- 이현주 (2011).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강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인보영, 김인옥 (2012). 아동의 성격강점이 학교생활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7, 81-95.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19, 169-183.
- 임수진, 안진홍 (2012).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학교적응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 331-345.

- 임영진 (2012). 성격강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 713-730.
- 임정순 (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진형, 김경미, 김동원, 김정희 (2008). 감사일지 작성이 주관적 안녕감,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감사성향 및 신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담론*, 11, 75-101.
- 한국일보 (2011. 5. 14).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또 꼴찌.
- Baker, J. A., & Maupin, A. N. (2009). School satisfaction and children's positive school adjustment. In R. Gilman, E. S. Huebner, & M. J. Furlong(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pp.189-196). NY: Routledge.
- Brown,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sso, L. D., & Trost, M. A. (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3), 438-446.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and London: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iener, E.,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Frisch, M. B. (2000). Improv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care through quality of life therapy and assessment. In E. Diener and D. R. Rahtz(Eds.),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pp.207-241).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ress.
- Gillham, J., & Reivich, K. (2004). Cultivating Optimism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146-163.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293-301.
- Huebner, E. S., & Alderman, G. L. (1993).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of a children's life satisfaction scale: Its relationship to self-and teacher-reported psychological problems and school function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30(1), 71-82.
- Katja, R., Paivi, A. K., Marja-Terttu, T., & Pekka, L. (2002).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 subjective well-being, health behavior, and school satisfaction. *Journal of School Health*, 72(6), 243-249.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5), 1350-1362.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Lopez, S. J. (2011). *The encyclopedia of positive psychology*. Hoboken, NJ: Wiley.
- Lounsbury, J. W., Fisher, L. A., Levy, J. J., & Welsh, D. P. (2009). Investigation of character strengths in relation to the academic success of college students.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7*(1), 52-69.
- McCullough, M. E., & Snyder, C. R. (2000). Classical sources of human strength: Revisiting an old home and building a new on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1), 1-10.
- Nicholson, I. A. M. (1998). Gordon Allport, character, and the 'culture of personality,' 1897-1937. *History of Psychology, 1*(1), 52-68.
- Noffle, E. E., Schnitker, S. A., & Robins, R. W. (2011). Character and personality: Connections between positive psychology and personality psychology. In K. M. Sheldon, T. Kashdan, & M. F. Steger (Eds.), *Designing positive psychology: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pp.207-227).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N., & Peterson, C. (2005).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character strengths for youth. In L. H. Lippman, K. A. Moore, L. Guzman, G. Matthews, & J. Hamilton, (Eds.), *What do children need to flourish?* (pp.13-23). Springer US.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 N., & Peterson, C. (2008). Positive psychology and character strengths: Application to strengths-based school counseling.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2*(2), 85-92.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Patrick, H., Yoon, K. S., & Murphy, A. (1995).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competence, and early school adjustment: A contextu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ERIC Clearinghouse.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SA.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역, 2009)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P. (2006). Greater strengths of character and recovery from ill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 17-26.
- Peterson, C., Park, N., Pole, N., D'Andrea, W., & Seligman, M. E. P. (2008). Strengths of character and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2), 214-217.
- Proctor, C., Tsukayama, E., Wood, A., M., Maltby, J., F. Eades, J., & Linley, P. A.

- (2011). Strengths gym: The impact of a character strengths-based interven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of adolescent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5), 377-388.
- Ruch, W., Proyer, R. T., Harzer, C.,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10).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VIA-I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1*(3), 138-14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unk, D. H., & Ertmer, P. A. (2000). Self-regulation and academic learning: Self-efficacy enhancing interventions. In M. Boekaerts, P. Pintrich, & M. Seidner (Eds.), *Self-regul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pp.631-649). Orlando, FL: Academic Pres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eligman, M. E. P., Ernst, R. M., Gillham, J., Reivich, K., & Linkins, M. (2009). Positive education: Positive psychology and classroom interventions. *Oxford Review of Education, 35*(3), 293-311.
- Shoshani, A., & Aviv, I. (2012). The pillars of strength for first-grade adjustment-Parental and children's character strengths and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4), 315-326.
- Shoshani, A., & Slone, M. (2013). Middle school transition from the strengths perspective: Young adolescents' character strengths, subjective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163-1181.
- Stiglbauer, B., Gnams, T., Gamsjäger, M., & Batinic, B. (2013). The upward spiral of adolescents' positive school experiences and happiness: Investigating reciprocal effects over tim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2), 231-242.
- 원고접수일 : 2013. 12.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4. 17.
최종게재결정일 : 2014. 04. 20.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nd Happiness

Hyun-Jung Kim

Young-Gun Ko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r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which may contribute to child and adolescent happines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nd happiness. The subjects were 393 elementary school children (199 boys, 194 girls) from grade 4 to 6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character virtu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Then the mediating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nd happiness were examin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revealed that school adjustmen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child and adolescent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ffect happiness indirectly through school adjustment.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e importance of school adjustment for child and adolescent happiness. Last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happiness, school adjustment, mediation effect